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 **

The Differences in Job Stress, Teacher Efficacy,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and Their Influences on Depression

이경숙¹ 채진영² 김명식³ 박진아⁴ 이정민⁵

Kyung-Sook Lee¹ Jin-Young Chae² Myung-Sik Kim³ Jin-Ah Park⁴ Jeong-Min Lee⁵

ABSTRACT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이 논문은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정책연구과제(과제번호11-1352000-001654-01) “보육교사의 보육 스트레스 조절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연구된 것임.

1 제1저자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2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및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e-mail : jychae@jbnu.ac.kr)

3 공동저자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4 공동저자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센터장

5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전담교수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job stress, teacher efficacy,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of teacher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backgrounds, 2)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se variables on depression. 586 teachers in ECEC answered the questionnaire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One-Way ANOVA, Bonferroni post hoc test, and stepwise regression using SPSS 21.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ob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EC teachers' ages and types of centers they were employed at teacher effica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ages and education levels,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and depression were respectively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s, types of centers and education levels. Second, ECEC teachers' depression was influenced by undercontrolled expression of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home connection and promotion of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of teacher efficacy, undercontrolled thinking of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and work overload and job stress in order. These results imply that a support system and a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for ECEC teachers to express and understand their emotions in a positive way and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m through workshops.

Key words Teach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ob Stress, Teacher Efficacy,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Depression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해 생애 초기부터 기관에서의 대리

양육을 경험하는 영유아수가 증가하여, 2014년 12월 현재, 전체 영유아 인구 274만명 가운데 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수는 15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2004년 전국 2만 7천여 개이었던 어린이집은 10년 사이 4만 4천 여개로 60% 정도 증가하였고, 보육교직원도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31만명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 2015). 이는 보육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보육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시기임을 암시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뿐 아니라 적절한 교수법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학습 동기를 유도해야 하고, 영유아들끼리의 갈등해결을 도와줘야 하며, 부모들과의 긍정적인 유대관계, 원장 및 동료들과의 협력 등 보육교사에게 동시에 요구되는 업무 및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La Paro, 2016). 하루 일과 대부분의 시간동안 부모 대신 영유아를 돌보며 교육하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은 영유아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Forehead, Jones, Brody, & Armistead, 2002). 따라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인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곧 보육의 질적인 성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에 보육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우울을 살펴보려 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1년 53만 여명이었던 국내 우울증 환자수가 2015년에는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2016). 물론 이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수치이지만, 일반적으로 우울은 자기비하, 사회적 위축, 비관주의, 실패감, 신체에 대한 비난 또는 집착 등으로 나타나서 우울 증세를 지니는 개인은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하지 못한다(von Korff, Ormel, Katon, & Lin, 1992). 또한 우울은 개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직장인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경, 이경화, 2014). 최근 서울의 D구에서는 보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복지강화를 위한 정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병원과 협약을 맺어 적극적으로 보육교사를 위한 우울증 예방프로그램과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정태성, 2016). 그동안 부모 특히 어머니의 우울이 영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고유빈, 하은혜, 2010; 박찬화, 이윤선, 2015; 이희정, 2012)는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보육시설에서 오랜 시간동안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부모 대신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교사의 우울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강상경(2010)은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의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의 우울감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보육교사직은 성비가 매우 불균형인 직업 중의 하나로 2014년 12월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남성보육교사는 1,100 여명인 반면 여성보육교사의 수는 20여만명으로 남자보육교사에 비해 거의 180배 정도 많다(보건복지부, 2015). 특히 교사와 어머니 모두 우울증상을 보일 경우 아동 역시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Forehead et al., 2002), 보육교사의 우울은 아동의 외현적, 내면적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Jeon, Buettner, & Snyder, 2014). 그러므로 질적인 보육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보육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변인 중 하나는 직무스트레스이다.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교수환경에서 직무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개인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 및 지나친 직무나 대인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심리적 평형상태를 위협하는 것으로 (Leach, 1984), 교사의 안녕 또는 자존감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교사가 인식하여 대처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의미한다(Kyriacou, 2001).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Lazarus와 Folkman(1984)은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개인과 직무 환경 간의 역동적이며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혜영(2004)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근무기관인 어린이집에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극이나 요구가 보육교사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고 이를 보육교사 자신이 지각하여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기제나 능력에 의해 조절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교사의 우울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어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하였고(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Hammen & DeMayo, 1982; Mearns & Cain, 2003), 과도한 업무 자체 역시 교사의 우울을 증가시켰다(Ferguson, Frost, & Hall, 2012). 이와 같이 영유아와 장시간 상호작용을 하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의외로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하위요인별로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변인은 교사효능감이다. 교사효능감은 교사로서 학습자에게 배움에 대한 영향을 미치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신념으로 여겨진다(Guskey & Passaro, 1994; Klassen, Tze, Betts, & Gordon, 2011). 교사의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학습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배움과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학습운영도 긍정적으로 하지만(김현지, 2006; Tschannen-Moran, Hoy, & Hoy, 1998),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즉 효능감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낀다(Mirowsky & Ross, 2003). 보육교사의 우울은 보육현장에서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방해하여 보육교사로서의 효능감과 우울의 심각성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민하영, 2011; Kim & Kim, 2010).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드물지만, 김현순(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낮은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혔고, 이정은(2005)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우울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5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1년간의 종단연구에서도 향상된 자기효능감이 우울을 낮추는 요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Holahan & Holahan, 1985). 이와 같이, 효능감과 우울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육교사의 효능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보육교사의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도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처해진 상황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심리

적 증상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며 정서표현이나 정서 이해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다(최혜연, 민경환, 2003). 즉, 인지적, 심리적, 행동적인 노력을 통해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조절하는 방식이다(Folkman & Lazarus, 1980). 최혜연과 민경환(2003)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정서의 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발산적, 조절적, 차폐적으로 나타난다. 정서조절이 덜 억제되고 반추하며 신체화된 표현 등으로 발산적인 방식, 자신의 정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분석하려는 조절적인 방식,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짐에 따라 자신의 정서표현을 차폐(masking)하는, 즉 숨기는 대처방식을 뜻하는데, 발산적인 방식은 주변 환경과 갈등하게 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차폐적인 방식은 자신의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전통을 지닌 동양문화권에서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aker & Berenbaum, 2007; Dyson & Renk, 2006),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공존한다. Austenfeld와 Stanton(2004)은 여성이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반면,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면 우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공수자, 이은희, 2006), 정서적 스트레스 대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증후를 예측하는 요인이라고도 한 연구도 있다(Moos & Holahan, 2003).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과 같은 디스트레스 증상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최신 국외 선행연구결과(Ireland, Boustead, & Ireland, 2005; Varescon, Leignel, Gérard, Aubourg, & Dettileux, 2013)를 바탕으로 이를 국내에 적용하여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 간의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보육교사의 우울 예측 요인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우선 이러한 변인들이 보육교사의 연령, 근무기관 유형, 최종학력 등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보육교사 또는 성인의 연령, 근무기관유형, 최종학력 등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우울의 차이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어 왔다(김문두, 황승욱, 홍성철, 2003; 김순이, 이정인, 2007; 나동석, 황혜원, 2004; 유계숙, 김수경, 강경화, 박지혜, 황지영, 2011; 이세나, 2007; 이형민, 2009). 즉, 보육교사의 연령, 근무기관 유형, 최종학력 따라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우울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결과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연구들은 거의 10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보육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보육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최근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보육교사의 연령, 근무기관 유형, 최종학

력 등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갱신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보육교사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및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어린이집 총 99개 기관을 임의선정하여 원장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에 동의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총 79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656부를 수거하여 회수율은 82.3%이었다. 이 가운데 부실응답을 한 응답자의 설문지 70부를 제외하여 586부의 자료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 전원이 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41-45세가 가장 많았고(23.5%), 만 31-35세가 125명(2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가 30.7%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27.0%), 가정(25.8%) 어린이집 순으로 많았다. 최종학력은 2-3년제 대학 졸업자가 전체 54.9%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1.4%이었다.

2. 연구도구

1) 우울

Redloff(1977)가 개발한 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20문항을 Andresen, Malmgren, Carter 그리고 Patrick(1994)이 10문항으로 단축시킨 CES-D 10을 사용하였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등 최근 1주일간에 느낌 감정에 대한 내용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었다(1주일 동안 1회 이하)’를 1점, ‘대부분 그랬다(1주일 동안 5일 이상)’를 4점으로 하는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의미의 2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77이다.

〈표 1〉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 (N = 586)

변수	빈도(명)	%	
연령	만 20-25세	71	12.1
	만 26-30세	79	13.5
	만 31-35세	125	21.3
	만 36-40세	100	17.1
	만 41-45세	138	23.5
	만 46세 이상	73	12.5
	근무기관 유형	국공립	158
민간		180	30.7
가정		151	25.8
사회복지법인		71	12.1
법인단체등		26	4.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48
	2-3년제 대학 졸업	322	54.9
	4년제 대학 졸업	184	31.4
	대학원 이상	22	3.8
	기타	10	1.7

2) 직무 스트레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신혜영(200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보육 활동에 필요한 자료(예: 비품, 교재, 교구)가 부족하다’ 등의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과 관련된 11개 문항, ‘환경정리, 연락업무, 차량지도 등 잡무가 너무 많다’ 등 업무 과부하와 관련된 8개 문항, ‘어린이집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 등의 동료와의 관계 5문항,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무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다’ 등의 학부모와의 관계 3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91, .82, .84, .71이며, 전체적으로는 .93이다.

3) 교사효능감

Bandura(2006)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TSES)를 김연하와 김양은(2008)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하여 보육교사에게 맞게 요인분석을 거쳐 국내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자녀가 어린이집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방법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 줄 수 있다’ 등의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13문항, ‘다루기 어려운 유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다’ 등의 교수방법 7문항, ‘어린이집 유아와 지역 사회단체들 (예: 노인정, 소방서, 경찰서 등..)을 연계 시킬 수 있다’ 등의 지역기관 연계 4문항, ‘어린이집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다' 등의 의사결정 참여 5문항 등 총 4개 하위요인,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88, .73, .86, .63이며, 전체적으로는 .91이다.

4) 정서 중심 스트레스 대처 방식

보육교사의 정서 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Carver와 Scheier(1989)가 개발한 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s Experienced(COPE)을 바탕으로 최혜연과 민경환(2003)이 요인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정서의 이해 및 표현에 의한 대처(Coping through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of Emotion: CUE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짜증을 낸다' 등의 발산적 정서행동 5문항, '내 느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조절적 정서인식 4문항, '너무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등의 차폐적 정서행동 4문항, '공감이나 위로를 구한다' 등의 조절적 정서행동 3문항, '자꾸 좋지 않았던 기분을 떠올린다' 등의 발산적 정서인식 2문항 등 총 5개 하위요인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리커트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 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발산적 정서행동과 발산적 정서인식 대처를 더 많이 하고, 긍정적인 조절적 정서인식, 차폐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식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의 α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83, .87, .71, .64, .64이며, 전체적으로는 .75이다.

3. 연구절차

임의 선정된 J시의 어린이집 1곳을 직접 방문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 보육교사 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과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서울, 경기, 대전, 전라, 경상지역에서 연구에 참여할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원장에서 우선상으로 협조를 구한 후 99개 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총 79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약 2주 후 같은 방법으로 656부를 수거하여 회수율은 82.3%이었으며, 부실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86명이 응답한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배경을 통제변인을 설정한 후 편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는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고, 회귀모델의 적합성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한 다중공선성과 Durbin-

Watson 값으로 확인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우울의 차이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연령, 근무기관 유형,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교사효능감(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교수방법, 지역기관 연계, 의사결정 참여),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발산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식, 차폐적 정서행동, 조절적 정서인식, 발산적 정서인식) 및 우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 = 3.58, p < .01$), 만 26-30세($M = 3.50, SD = .78$), 만 31-35세($M = 3.51, SD = .85$) 집단이 만 46세 이상($M = 3.06, SD = .78$) 집단이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보육교사의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는 동료관계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법인어린이집 종사자($M = 2.66, SD = .69$)가 가정어린이집 종사자($M = 2.34, SD = .76$)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F = 4.51, p < .01$), 학부모와의 관계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M = 3.56, SD = .85$)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M = 3.35, SD = .83$)와 가정어린이집 종사자($M = 3.16, SD = .7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5.20, p < .001$).

보육교사 효능감의 경우, 하위요인 가운데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만 21-25세($M = 3.70, SD = .49$)집단이 만 46세 이상($M = 4.00, SD = .52$)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 = 2.65, p < .05$).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만 21-25세($M = 3.31, SD = .42$)의 효능감이 가장 낮아서 만 31-35세($M = 3.62, SD = .55$), 만 41-45세($M = 3.63, SD = .55$), 만 46세 이상($M = 3.84, SD = .79$)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 = 7.81, p < .001$). 의사결정참여에 대한 효능감의 차이 역시 만 21-25세($M = 3.35, SD = .52$)이 만 46세 이상($M = 3.73, SD = .70$)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F = 2.90, p < .05$). 보육교사의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효능감($M = 4.23, SD = .50, F = 2.71, p < .05$), 교수방법에 대한 효능감($M = 3.96, SD = .53, F = 3.55, p < .01$)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효능감($M = 3.86, SD = .60, F = 2.57, p < .05$)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2-3년제 대학 졸업 집단과 4년제 대학 졸업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지역기관 연계에 대한 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경우,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발산적 정서행동은 만 21-25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M = 2.84, SD = .79$), 이는 가장 적은 만 46세 이상($M = 2.10, SD = .7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8.78, p < .001$). 발산적 정서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표 2>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586)

구분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원장의 지도력/ 행정지원 부족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가정연계 /공정적 학습환경 조성	교수방법	지역 기관 연계	의사 결정 참여	발산적 정서 행동	조절적 정서 인식	차폐적 정서 행동	조절적 정서 행동	발산적 정서 인식		
연령	만20-25세	2.47(.79)	3.49(.76)	2.29(.80)	3.32(.66)	3.70(.49) ^g	3.31(.42) ^g	3.15(.74)	3.35(.52) ^g	2.84(.79) ^g	3.78(.60)	3.24(.58)	3.20(.69)	3.20(.85) ^g	2.01(.62) ^g
	만26-30세	2.58(.79)	3.58(.78)	2.42(.81)	3.50(.78) ^a	3.85(.72)	3.46(.54) ^{abc}	3.30(.82)	3.48(.66)	2.52(.80) ^{abc}	3.69(.67)	3.21(.65)	3.26(.67)	3.06(.84)	1.85(.54) ^a
	만31-35세	2.60(.78)	3.61(.80)	2.39(.86)	3.51(.85) ^a	3.93(.53)	3.62(.55) ^{bcd}	3.29(.69)	3.62(.69)	2.58(.74) ^{abc}	3.80(.64)	3.27(.63)	3.31(.68)	3.04(.81)	1.80(.60) ^a
	만36-40세	2.59(.80)	3.56(.76)	2.39(.82)	3.42(.90)	3.84(.50)	3.54(.42) ^{abc}	3.19(.69)	3.54(.54)	2.39(.77) ^{bcd}	3.66(.75)	3.29(.68)	3.16(.73)	2.93(.78)	1.56(.44) ^b
	만41-45세	2.69(.67)	3.52(.72)	2.43(.74)	3.32(.75)	3.93(.60)	3.63(.55) ^{bcd}	3.31(.80)	3.59(.73)	2.33(.75) ^{bcd}	3.75(.71)	3.29(.64)	3.22(.62)	2.81(.76) ^b	1.54(.43) ^b
	만46세 이상	2.52(.75)	3.33(.72)	2.38(.84)	3.06(.78) ^b	4.00(.52) ^b	3.84(.79) ^d	3.47(.69)	3.73(.70) ^b	2.10(.73) ^d	3.78(.72)	3.45(.65)	3.21(.76)	3.04(.93)	1.52(.46) ^b
	F	.98	1.50	.32	3.58**	2.65*	7.81***	1.74	2.90*	8.78***	.65	1.26	.64	2.58*	13.06***
근무 기관 유형	국공립	2.49(.81)	3.49(.83)	2.40(.86)	3.56(.85) ^a	3.93(.55)	3.60(.52)	3.37(.65)	3.63(.59)	2.44(.87)	3.90(.63) ^a	3.34(.66)	3.27(.67)	3.08(.83)	1.85(.64) ^a
	민간	2.64(.71)	3.62(.71)	2.36(.76)	3.35(.83) ^b	3.80(.66)	3.48(.59)	3.19(.81)	3.46(.76)	2.57(.79) ^a	3.67(.71) ^b	3.32(.71)	3.27(.71)	3.04(.87)	1.66(.54) ^b
	가정	2.57(.79)	3.43(.77)	2.34(.76) ^a	3.16(.74) ^a	3.94(.50)	3.67(.63)	3.23(.78)	3.60(.63)	2.33(.72) ^b	3.66(.69) ^c	3.24(.54)	3.14(.63)	2.88(.78)	1.57(.41) ^c
	사회복지법인	2.69(.65)	3.60(.69)	2.66(.69) ^b	3.42(.65) ^{abcd}	3.86(.47)	3.57(.48)	3.38(.68)	3.55(.61)	2.56(.68) ^{ac}	3.80(.63)	3.20(.58)	3.25(.73)	2.95(.75)	1.72(.47)
	법인단체등	2.78(.73)	3.45(.75)	2.72(.1.08)	3.32(.92)	3.99(.49)	3.62(.44)	3.50(.66)	3.64(.48)	2.28(.76)	3.70(.79)	3.30(.68)	3.21(.75)	2.92(.88)	1.61(.49)
	F	1.69	1.66	4.51**	5.20***	1.78	2.22	2.32	1.69	2.59*	3.41**	.84	.97	1.26	5.7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	2.54(.84)	3.34(.84)	2.38(.90)	3.15(.79)	3.94(.54)	3.60(.51)	3.24(.73)	3.40(.61)	2.29(.72)	3.59(.69)	3.32(.59)	3.27(.55)	2.97(.71)	1.58(.49) ^g
	2-3년대 졸	2.60(.75)	3.50(.75)	2.37(.81)	3.37(.84)	3.87(.58) ^a	3.53(.50) ^a	3.27(.76)	3.53(.63) ^a	2.25(.80) ^a	3.74(.67)	3.30(.60)	3.23(.68)	3.03(.81)	1.76(.50) ^b
	4년대 졸	2.59(.76)	3.60(.76)	2.38(.76)	3.41(.76)	3.84(.55) ^a	3.60(.66) ^a	3.27(.73)	3.62(.72) ^a	2.39(.74)	3.76(.73)	3.23(.71)	3.23(.73)	2.91(.86)	1.63(.44) ^a
	대학원 이상	2.50(.73)	3.76(.71)	2.70(.82)	3.53(.72)	4.23(.50) ^b	3.96(.53) ^b	3.65(.70)	3.86(.60) ^b	1.91(.75) ^b	3.97(.48)	3.48(.80)	3.38(.67)	3.18(.91)	1.56(.60)
	기타	2.88(.36)	3.43(.41)	2.59(.90)	3.37(.23)	4.07(.59)	3.79(.64)	3.53(.53)	3.62(.61)	2.52(.78)	3.78(.55)	3.58(.64)	3.07(.81)	3.10(.70)	1.67(.42)
	F	.52	1.77	1.01	1.20	2.71*	3.55**	1.68	2.57*	4.80**	1.22	1.43	.44	1.04	2.78*

* $p < .05$, ** $p < .01$, *** $p < .001$.

주. ^{a,b,c,d} 같은 문자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

만 21-25세($M = 3.20$, $SD = .85$)이었으며, 이는 가장 낮은 만 41-45세($M = 2.81$, $SD = .76$)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었다($F = 2.58$, $p < .05$).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발산적 정서행동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종사자($M = 2.57$, $SD = .79$)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이는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M = 2.33$, $SD = .72$)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 = 2.59$, $p < .05$). 조절적 정서인식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가 가장 높았고($M = 3.90$, $SD = .63$), 가정어린이집 종사자가 가장 낮았는데($M = 3.66$, $SD = .69$),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41$, $p < .01$).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산적 정서행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 = 4.80$, $p < .01$), 2-3년제 대학 졸업 집단($M = 2.25$, $SD = .80$)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M = 1.91$, $SD = .7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우울의 경우,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에 따른 차이는 만 35세 이하가 만 36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 = 13.06, p < .001$). 근무기관 유형에 따른 우울은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가 가장 높았고($M = 1.85, SD = .64$), 민간어린이집 종사자($M = 1.66, SD = .54$)와 가정어린이집 종사자($M = 1.57, SD = .4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5.78, p < .001$). 최종학력에 따른 우울은 2-3년제 대학 졸업 집단($M = 1.76, SD = .59$)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M = 1.58, SD = .49$)과 4년제 대학 졸업 집단($M = 1.63, SD = .44$)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 = 2.78, p < .05$).

2.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보육교사의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연령, 근무기간유형, 최종학력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편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은 우울과 .17~.21의 상관계수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지역기관 연계를 제외한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교수방법, 의사결정 참여는 -.19~-0.13의 상관계수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발산적 정서행동($r = .38, p < .01$)과 발산적 정서의식($r = .23, p < .01$)만이 각각 우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우울도 높았고,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교수방법,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효능감이 높으면 우울은 낮았으며, 발산적 정서행동을 많이 하고 발산적 정서의식이 높으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요인인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업무 과부하, 동료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와 교사효능감 가운데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 교수방법, 의사결정 참여,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과 발산적 정서의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이 우울에 가장 큰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beta = .28, p < .001$), 교사효능감의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이 부적인 영향을($\beta = -.15, p < .001$),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의식($\beta = .14, p < .001$), 직무스트레스의 업무 과부하($\beta = .13, p < .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회귀모델에서는 이 네개의 변인이 순서대로 투입되어 보육교사의 우울을 20% 설명하였으며($F = 36.27, p < .001$), 이는 적합한 회귀모델 범주에 속하였다($VIF = 1.05, Durbin - Watson = .93$).

〈표 3〉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 간의 편상관관계 (N = 586)

변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우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64**	1.00													
3	.61**	.40**	1.00												
4	.50**	.69**	.44**	1.00											
5	-.23**	-.14**	-.18**	-.12**	1.00										
6	-.16**	-.07	-.14**	-.05	.62**	1.00									
7	-.03	.03	.06	.05	.50**	.35**	1.00								
8	-.29**	-.14**	-.15**	-.07	.53**	.51**	.32**	1.00							
9	.23**	.19**	.20**	.17**	-.13**	-.15**	-.03	-.11**	1.00						
10	-.05	.06	-.05	.11**	.33**	.25**	.15**	.19**	.06	1.00					
11	-.04	-.02	-.01	.04	.17**	.15**	.11**	.17**	-.06	.41**	1.00				
12	.04	.11**	.06	.13**	.24**	.22**	.17**	.16**	.12**	.36**	.16**	1.00			
13	.10*	.07	.12*	.15**	-.02	-.02	-.01	-.02	.36**	.22**	.10*	.33**	1.00		
14	.20*	.21**	.17**	.18**	-.19**	-.13**	-.04	-.15**	.38**	-.01	-.01	.01	.23**	1.00	

* $p < .05$, ** $p < .01$.

주. 1.원장의 지도력/행정지원부족, 2.업무 과부하, 3.동료와의 관계, 4.학부모와의 관계, 5.가정연계/긍정적 학습환경조성, 6.교수방법, 7.지역기관연계, 9.발산적정서행동, 10.조절적정서인식, 11.차폐적정서행동, 12.조절적정서행동, 13.발산적정서인식, 14.우울

〈표 4〉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 = 586)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R^2	adj. R^2	F	VIF	Durbin-Watson
우울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발산적정서행동	.19	.28	.14	.14	36.27***	1.05	.93
	교사효능감-가정연계/ 긍정적학습환경조성	-.14	-.15	.17	.17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발산적정서인식	.09	.14	.19	.18			
	직무스트레스-업무 과부하	-.09	.13	.20	.20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의 차이와 이 변인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받는 직무스트레스는 높고, 교사효능감은 낮으며, 발산적 정서행동과 정서인식으로 나타나는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우울도 높았다. 이는 낮은 연령의 보육교사는 높은 연령의 보육교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고(나동석, 황혜원, 2004), 교사효능감이 낮다는 연구결과(이세나, 2007), 20대 초반 교사의 우울이 20대 후반 교사의 우울보다 높았다는 연구결과(나동석, 황혜원, 2004)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낮은 경우, 업무처리나 대인관계 경험이 비교적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인으로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고, 효능감 역시 낮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우울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아직 인생경험, 사회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젊은 연령층의 보육교사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통해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용을 줄이며,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여가생활 장려, 전문가 또는 멘토와의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관련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면과 심리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지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보육현장에서의 지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지위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김영희, 2013; 나동석, 황혜원, 2004; 이형민, 2009)와 차이가 있어 3~5년 경력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는 연구결과(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가 공존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경우, 반드시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므로, 연령과 경력을 연관지어 무리한 해석을 하는 오류는 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차후에 더 많이 수행되어 심층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근무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직무스트레스가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사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은 민간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가장 많이 하였고, 조절적 정서인식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가장 많이 하였으며, 우울 또한 가장 높았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직무스트레스는 높다(유계숙 등, 2011; 이형민, 2009)는 선행연구 결과와 기관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유계숙 등, 2011; 이세나, 2007)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고(서울특별시, 2015), 정부 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16년에만 302억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정현수, 2016).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높다는 이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를 설립주체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자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교직원의 복지가 안정적이고 인건비는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 유형보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이 높다는 것은 받는 혜택보다 책임 및 부담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결과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보육의 양적인 팽창이 아

년, 질적인 향상까지도 동반되는 진정한 보육의 성장을 위해서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보육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과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은 높았고,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은 적게 하였다. 2-3년제 대학 졸업자의 우울이 고졸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높았다. 이는 학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나동석, 황혜원, 2004; 이형민, 2009;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었지만, 학력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유계숙 등, 2011; 이세나, 2007; 이형민, 2009)와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선행연구(김문두, 황승욱, 홍성철, 2003; 김순이, 이정인, 2007)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요인인 교사효능감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가 학력을 높이고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단축 및 업무 감소 등 물리적, 심리적인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교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 교사효능감의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인식, 직무스트레스의 업무 과부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높은 자기효능감이 우울을 낮추었다는 연구결과(김현순, 2009; 이정은, 이민규, 2005)와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면 우울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공수자, 이은희, 2006; Moos & Holahan, 2003), 과도한 업무가 교사의 우울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Ferguson, Frost, & Hall, 2012; Jurado et al., 2005; Mahan et al., 2010)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특히 보육교사의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보육교사의 우울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발산적 정서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지닌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발산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서조절이 덜 억제되고 반추하며 신체화된 표현 등으로 나타나며 주변 환경과 갈등하게 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최혜연, 민경환, 2003). 이렇게 거침없고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과 인식으로 나타나는 보육교사의 발산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우울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이었으므로, 이러한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여 우울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보육교사 대상의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과 같은 디스트레스 증상을 강화시킨다(Ireland et al., 2005; Varescon et al., 2013)는 정보를 전달하여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보육교사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보육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보육교사가 고충상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의 고충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법이 개정되었지만, 상담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윤설아, 2016). 또한 가정 연계 및 긍정적 학습 환경 조성에

대한 효능감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예측요인이므로 영유아의 부모가 제공하는 지지와 협조는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보육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보육교사의 개인역량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부모교육 등을 통해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부모의 이해와 영유아를 함께 양육한다는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의 업무과부하는 곧 우울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서류간소화라는 서울시의 노력은 시작되었지만(서울특별시, 2015. 7. 15),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고, 자치구와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권고한 사항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형식적인 권고사항이 아닌 보육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여 보육교사가 직접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받는 직업이 아니라, 자율성 확보 및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받아 성장하는 영유아와 더불어 보육교사도 전문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업무과다로 인한 낮은 직무만족은 교사의 우울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교사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학습자에게 전달된다(Jurado et al, 2005; Mahan et al., 2010)는 중요한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정서중심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우울에 대해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소지한 자격증 종류, 근무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좀 더 다양한 보육교사의 일반적 배경 요인을 고려하는 동시에 회복탄력성, 일상 스트레스와 같은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면 보육교사의 우울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도 포함시키고, 각 집단의 빈도수도 비슷하게 맞추어 비교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기보고에 의한 설문조사로만 자료가 수집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인 자료를 포함한다면 더욱 깊이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경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의 성별, 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100.
- 고유빈, 하은혜 (2010). 어머니 우울증상과 자녀 우울증상의 상관과 어머니 표출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63-80.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김문두, 황승욱, 홍성철 (2003). 제주농촌 지역 주민들의 우울증 유병률 및 우울증상과 관련 요

- 인. **가정의학회지**, **24**, 833-844.
- 김순이, 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4**(1), 103-109.
- 김연하, 김양은 (2008). Bandura의 교사 자기 효능감 척도(Teacher Self-efficacy Scale) 요인구조 분석. **유아교육연구**, **28**(2), 169-191.
- 김영희 (2013). 보육교사의 자존감과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김현지 (2006).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동석, 황혜원 (2004).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직무스트레스가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8**(4), 733-756.
- 민하영 (2011). 유아보육 및 교육기관장의 변혁적 리더쉽과 교사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교사 우울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2**(5), 1-12.
- 박찬화, 이윤신 (2015).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생애학회지**, **5**(2), 77-97.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보육통계**.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에서 2015년 11월 19일에 인출
- 보건복지부 (2016. 2. 23). **국립서울병원,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재탄생**.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30117에서 2016년 3월 2일 인출
- 서울특별시 (2015. 1. 13). **서울시, '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더 늘린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1982&act=VIEW&boardId=21982에서 2016년 4월 5일 인출
- 서울특별시 (2015. 7. 15). **서울시, 「보육교사 현장업무 줄이기 4대 대책」 시행**.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3809&act=VIEW&boardId=23809에서 2016년 3월 7일 인출
- 신혜영 (200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효능감이 교사 행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 김수경, 강경화, 박지혜, 황지영 (2011). 보육시설의 조직문화, 초임보육교사의 배경변인,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건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81-104.
- 윤설아 (2016, 1, 26). ‘법에만 있는’ 보육교사 고충상담(지자체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경인일보**, p. 23.
- 이세나 (2007).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2), 1-21.

- 이정은 (2005). 자기복잡성과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지각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민 (2009).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교사신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56(1), 187-208.
- 이희정 (2012). 어머니 우울이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1(2), 230-258.
- 정태성 (2016. 2. 15). 동작구, 전국최초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청’시대 열어.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1602150929022685298_4에서 2016년 3월 2일 인출
- 정현수 (2016. 1. 20).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2004225984025&outlink=1>에서 2016년 4월 15일 인출
- 정혜경, 이경화 (2014).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우울 및 소진의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3), 159-181.
- 최혜연, 민경환 (2003). 정서이해와 정서표현에 의한 대처 척도 보완과 정서-중심적 대처 하위 차원의 기능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05-118.
- 황해익, 김미진, 탁정화 (2012).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313-335.
- 황현숙, 이지연, 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2), 495-515.
- Andresen, E. M., Malmgren, J. A., Carter, W. B., & Patrick, D. L. (1994). Screening for depression in well older adults: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0(2), 77-84.
- Austenfeld, J. L., & Stanton, A. L. (2004). Coping through emotional approach: A new look at emotion, coping and health-relate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72(6), 1335-1363.
- Baker, J. P., & Berenbaum, H. (2007). Emotional approach and problem-focused coping: A comparison of potentially adaptive strategies. *Cognition and Emotion*, 21(1), 95-118.
- Bandura, A. (2006). Guide for constructing self-efficacy scal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307-337). NY: H. H. Freeman.
- Carver, C., & Scheier, M.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 Dyson, R., & Renk, K. (2006). Freshme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Depressive symptoms,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0), 1231-1244.
- Ferguson, K., Frost, L., & Hall, D. (2012). Predicting teacher anxiety,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8(1), 27-42.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3), 219-239.
- Forehead, R., Jones, D. J., Brody, G. H., & Armistead, L. (2002). African American children's

- adjustment: The roles of maternal and teacher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1012-1023.
- Guskey, T. R., & Passaro, P. D. (1994). Teacher 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dimens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3), 627-643.
- Hammen, C. L., & DeMayo, R. (1982). Cognitive correlates of teacher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mplications for attributional models of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1(2), 96-101.
- Holahan, C. K., & Holahan, C. J. (1985).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in aging: A longitudinal analysis. *The Journal of Gerontology*, 42(1), 65-68.
- Ireland, J. L., Boustead, R., & Ireland, C. A. (2005). Coping style and psychological health among adolescent prisoners. *Journal of Adolescence*, 28(3), 411-423.
- Jeon, L., Buettner, C. K., & Snyder, A. R. (2014). Pathways from teacher depression and child-care quality to child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2(2), 225-235.
- Jurado, D., Gurpegui, M., Moreno, O., Fernández, C., Luna, J. D., & Gálvez, R. (2005). Association of personality and work condi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European Psychiatry*, 20(3), 213-222.
- Kim, Y. H., & Kim, Y. E. (2010).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multi-dimensional teacher self-efficacy and ECE center climate and depression severity in teachers as contributing facto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5), 1117-1123.
- Klassen, R. M., Tze, V. M. C., Betts, S. M., & Gordon, K. A. (2011). Teacher efficacy research 1998-2009: Signs of progress or unfulfilled promis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3(1), 21-43.
- Kyriacou, C. (2001). Teacher stres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Review*, 53(1), 27-35.
- La Paro, K. M. (2016). Field experiences in the prepar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 L. J. Couse & S. L. Recchia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p. 209-223), NY: Routledge.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ach, D. J. (1984). A model of teacher stress and its implications for man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2(2), 157-172.
- Mahan, P. S., Mahan, M. P., Park, N. J., Shelton, C., Brown, K. C., & Weaver, M. T. (2010). Work environment stressors, social support,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secondary school teacher. *Americ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58(5), 197-205.
- Mearns, J., & Cain, J. E. (2003).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occupational stress and their burnout and distress: Roles of coping and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6(1), 71-82.
- Mirowsky, J. & Ross, C. E. (2003). *Social causes of psychological distress* (2nd ed.).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Moos, R. H., & Holahan, C. J. (2003). Disposition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on coping: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2), 1387-1403.
- Re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Tschannen-Moran, M., Hoy, A. W., & Hoy, W. K. (1998). Teacher efficacy: Its meaning and measur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8*(2), 202-248.
- Varescon, I., Leignel, S., Gérard, C., Aubourg, F., & Detilleux, M. (2013). Self-esteem,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ping styles in pregnant smokers and non-smokers. *Psychological Reports, 113*(3), 935-947.
- von Korff, M., Ormel, J., Katon, W., & Lin, E. H. (1992). Disability and depression among high utilizers of health care: A longitudinal analy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2), 91-100.

논문투고: 16.06.11
수정원고접수: 16.07.20
최종게재결정: 16.07.29